

SBS 혁신적 조직 개편

'1등 방송' 향하여

SBS는 지난 8월 내부조직 혁신을 위해 조직을 개편했다.이번 조직 개편은 소통과 협업 체계적인 의사결정, 민첩한 실행이 가능한 체제 혁신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급변하는 미디어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래전략실과 새로운 수익 창출을 위한 미디어비즈니스센터가 신설되고 뉴미디어뉴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성과 기능을 강화하는 보도시스템에 변화를 주었다. 또 제작부문에 의사결정 단계 축소와 콘텐츠 경쟁력의 핵심인 집단적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 될 수 있

도록 차장 부장 국장 직원 호칭을 폐지하고 전문성과 경쟁력을 키우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전문 직원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호칭 폐지는 국내 언론사 중 최초 시도이며 이번 조치를 통해 SBS에는 일과 보람 위주의 새로운 조직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직개편과 함께 단행된 인사는 다음과 같다. ▶미래전략실장/김희남 ▶정책실장/신경렬 ▶보도본부장/서두원 ▶예능본부장/김상배 ▶시사교양본부장/남상문 ▶편성실장/전수진 ▶미디어비즈니스센터장/김혁

◆ 백두산 화보



◆〈백두산 가는길에〉

내 가슴 속에서 꺼낸 天地

글/고정성사우

왕복 2천5백Km의 대장정은 인천 공항에서 비행기로 한 시간 남짓 거리인 대련에서 시작된다. 단동을 거쳐 고구려의 옛 수도 집안을 지나 백두산을 오른 뒤 왔던 길을 되돌아가야 하는 4박 5일간의 강행군이다. 대련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단동으로 이동, 호텔에 여장을 풀 다음날 아침, 버스는 압록강 변을 따라 달렸다. 오른쪽은 북한 땅이다. 압록강의 크고 작은 섬들이 수면에 잠길 듯 차창으로 스친다. 조카의 손에 무참하게 처형된 장성택의 한이 서린 황금평이 지나간다. 그리고 위화도다. 이성계의 회군으로 조선 개국의 단초가 된 역사의 현장이다. 만약 이성계가 최영의 뜻대로 압록강을 건너 요동 정벌에 나섰다면 우리의 오늘날은 어떤 모습일까... 만주 땅의 광활함을 말해 주는 듯 옥수수 밭이 끝없이 펼쳐진다. '야! 여긴 인제 가는 길 같아!' 한 사우가 소리친다. 그랬다. 주변의 풍경이

마치 강원도 길을 달리는 듯 익숙하다. 고구려의 옛 도읍 국내성이 가까워져서 일까 마치 우리 시골을 찾는 느낌이다. 드디어 광개토대왕비 앞에 선다. 가뭇운 전율을 느낀다. 드넓은 대륙을 호령했던 대왕의 기상을 우리 후손에게도 내려주시라 빌며 장수왕릉으로 향한다. 커다란 석재들을 피라미드 형태로 쌓아 올려 매우 강인한 느낌을 준다. 당태종이 물고 왔던 백만 대군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않던 대 고구려의 기개가 담겨있는 듯하다. 이곳 일대에는 7천여기의 고구려 고분이 있다고 한다. 그중 하나인 오회분 오호 묘에서 고구려 벽화를 만난다. 묘실의 네 벽을 가득 채운 가로5미터 세로4미터의 벽화, 가이드 유반장의 손전등이 비출 때 마다 청룡 백호 주작 현루가 나타났다 사라진다. 수렵도에선 사냥하는 고구려 무사들의 역동적인 모습이 무용도에선 우아한 자태의 무희들의 춤이 눈

앞에 펼쳐진다. 1,500년 전의 것이라곤 믿기 어려울 정도로 색채가 아름답다. 돌가루를 갈아 물감을 만들고 그림위에 맺돼지 기름을 바랐다고 한다. 코앞에서 보는 고구려 벽화의 감동은 좋지만 벽화가 훼손되면 어쩌나 걱정이다. 여행 셋째날 백두산에 오르는 날이다. 비가 내린다. 정상에도 비가 온다는 비보가 전해진다. 매표소입구는 중국 등산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셔를 버스도 같이타고 짙은 구름 안개 속을 오르길 50분. 해발 2,500미터다. 이제 1,440계단만 오르면 백두산의 서쪽 정상이다. 간식거리를 만들며 파는 가게들을 지나 안개비를 맞으며 계단을 오른다. 드디어 마지막 계단. 발디딜 틈도 없이 꽉 들어찬 사람들을 헤치고 천지 방향 쪽으로 나아간다. 중국 등산객들의 떠드는 소리와 옆 사람 얼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질어지는 구름 안개. 차라리 눈을 감는다. 시끄러운 소리들이 사라지며 서서히 구름안개가 걷히기 시작한다. 천지다! 발아래 저 멀리.. 신비스럽도록 푸르른 천지...내 가슴 속에서

천지를 꺼내어 보고 있다. 조선과 중국으로 양분된 천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부끄러워 보여주지 않았던 것일까? 압록강 유람선에서 본 북한 동포들의 무료정과 초췌한 모습에 가슴 아파하고 고구려 박작성터에 호산장성을 급조해 만리장성의 시작점이라고 우기는 중국 동북공정의 역사 왜곡에 분노했던 역사 기행은 여운에서 끝난다. 안중근 의사께서 순국한 현장 여순 감옥을 숙연함 속에 살펴본 31명 사우들 머리 속에 안중근의사의 흉상 앞에 참배했다. 안중근의사 기념관 참배는 SBS 사우회 10주년 기념 여행의 의미를 더해 주었다.



〈사우회 창립 10주년 특별대담 / SBS미디어그룹 윤세영 회장〉

SBS 와 사우회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열자

▶**사 회** = 매년 12월 SBS 사우회 송년 모임에 함께하시는 회장님을 뵈 댔 때 사우들이 이구동성으로 회장님은 세월이 비껴가고 있다고 얘기 하는데 변함없는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인지요?

▶**윤회장** = 젊게 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나름의 건강비결을 말씀 드리다면, 합들더라도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평일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헬스클럽에서 1시간 반 정도 하체운동, 근력운동, 유산소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새벽에 가벼운 운동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서 운동 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품을 들고 운동하면 그만큼 보상이 따릅니다. 쉽게 늙지 않고 활력도 생깁니다.

이와 더불어서 중요한 시사적 문제나 현안에 대해 항상 귀를 열어놓고 내용을 살피는 습관도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 듯 합니다. 여전히 경영에 참여하고 있으니 그런 면도 있지만, 생각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은 정신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사 회** = 사우회 설립 당시 각별한 애정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회장님께서 SBS 사우회 창립 10주년을 맞아 남다른 감회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윤회장** = 10년이면 감산도 변한다고 합니다. SBS가 창립 26주년을 맞아 청년기에 접어들었는데, 우리 사우회도 이렇게 연륜과 규모가 커진 걸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회사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분들이 퇴직 후에도 함께 모여 회사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매해 깊이 감사 드립니다. 방송환경이 변해서 SBS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사우회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역경을 헤쳐 나갈 것입니다. 건강한 콘텐츠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SBS를 변함없는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 회** = SBS 사우회 설립을 추진 하셨을 때 회장님께서 생각하신 사우회가 밑거름과 비교해 기대만큼 성장 했다고 보시지요?



‘청년으로 성장한 사우회 자랑스럽다’
‘퇴직 후에도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에 감사’
‘SBS발전을 위해 쓴 소리도 아낌없이 해주길’

▶**윤회장** = 지금까지 우리 사우회는 퇴직 동료들이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여러 경조사에서 서로 협력하는 좋은 창구가 돼 왔습니다. 또 여유가 있을 때 만나 여가 활동을 함께 하는 것도 사우회 모임이

갖는 또 다른 즐거움일 것입니다. SBS 사우회는 ‘즐겁고 보람되게’ 라는 구호 아래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그 동안 어느 사우회보다도 잘 돼 왔다고 들었습니다. SBS를 인연으로 엮인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교제하며,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서로 도와가는 모습은, 갈수록 각박해지는 우리 사회에서 좋은 모범이 될 것입니다. 사우회는 우리 구성원들의 추억이 깃든 동창회이자 쉼터입니다. 사우들이 정겹고 활발하게 교제

고 특별히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면...

▶**윤회장** =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여생을 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노화에 따라 많은 질병들이 찾아올 수 있지만, 얼마나 자신을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질병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노년은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가계에도 큰 위험이 됩니다. 부부가 늙어가는 서로를 애뜻하게 배려하는 태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않고서는 절대 행복한 노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젊어서 못했던 사랑 표현도 아내에게 좀 하고, 서로 건강도 챙기고, 취미생활도 혼자 하지 말고 아내와 함께 하십시오. 인생의 동반자가 행복해야나도 행복하다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목표의식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노년에 무슨 목표나 할 지 모르지만 인생2막 혹은 3막을 보람 있게 살려면 작은 목표라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좋아하는 취미에서 어느 정도 수준을 이루겠다”, “재능기부로 봉사활동을 하겠다”, “경제활동을 조금 더 해보겠다”와 같은 목표를 갖다 보면 그만큼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SBS의 발전에 보탬이 될 만한 쓴소리도 아낌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은 충고와 아이디어가 SBS의 발전에 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SBS와 사우회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기원합니다.

▶**사 회** =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담/박동주 편집장

◆ 창립 10주년 축하 메시지 / MBC사우회 회장 이연현

더욱 빛나는 노년을 위하여

짧든 길든, 몸담았던 직장을 떠나 본 사 람이라면 누구나 공허감, 소외감,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상당 기간 진통을 겪습니다. 이러한 감정의 진통을 치유해주고 위무해 줄 상대로서 사우회 만한 조직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시간에 쫓기며 치열하게 살아 온 방송 현장, 그곳에서 활동하는 동안 선배, 후배, 동료로서 애환을 같이 했던 사이였기에 공유하는 추억도 많고 간직한 사연도 비슷하고, 그래서 더욱 속 깊은 대화가 오갈 수 있는 곳이 사우회라고 생각합니다. 한때는 MBC에서 한술밥을 먹었던 사람들을 몇몇 볼 수

있는 곳, 그래서 우리에게 SBS사우회는 그리 낯선 동네가 아닙니다. 비록 늦게 출발했지만 알뜰하게 사우회를 운영해 오신 역대 집행부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현재 화기에애하게 진행되고 있는 3사 사우회 친선 바둑대회 외에도 우리가 같이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끼리는 없는지 논의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방송보다 건강이 더 관심이 된 우리들의 노년이 더욱 빛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SBS사우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며 다시 한 번 창립 10주년을 축하합니다.

◆ 창립 10주년 축하 메시지 / KBS 사우회장 전봉찬

10살의 나이는 가장 찬란한 봄

연연세세 그 어느 해도 의미 없는 해는 없었지만 우리는 SBS사우회 창립 10주년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축하를 하고자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사에서 10년의 연륜이 길다고는 할 수 없을 지라도 10살의 나이는 가장 찬란한 봄날이자 도약과 역동을 시작하는 시점인 것은 분명합니다. 지나온 10년을 바탕으로 새롭게 이어갈 10년의 명맥을 준비하기 위해 지금 출발선에 선 SBS사우회에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면서 아울러 다양한 활동으로 큰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방송3사 사

우회는 과거 현역시절 프로그램으로 치열하게 경쟁했던 회우들이 이제는 방송계 원로로 서로 교류하며 친목을 도모하는 이른바 ‘절친’ 사이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4년 시작한 3사 사우회 친선바둑대회가 회를 거듭할수록 내실을 더해가고 있고 행사초청 등도 활발하여, 앞으로 교류 영역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더욱 활발한 교류를 통해 단단하기가 금(金)과 같고 아름답기가 난(蘭)과 같은 ‘금란지교(金蘭之交)’의 사귀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 경조사

축하합니다.

김호남 장녀(9/3)
송도근 장남(10/8)
신종섭 장남(10/15)
고희
이종수 박희재
이시권 우선균

애도합니다.

박건삼 빙모성(6/28)
이영혜 모친성(7/28)
이남기 빙모성(8/9)
김한중 부친성(8/23)
윤권중 부친성(9/2)
이동수 부친성(9/16)

이무삼 부친성(7/1)
이혜련 시모성(8/7)
한만균 부친성(8/17)
신선미 부친성(9/1)
엄호섭 모친성(9/3)

〈긴급공지〉

경조사비 입금자를 찾습니다. 사우회에 경조사비를 전달하기 위해 입금한 사우들중 본인의 성명을 표기하지 않고 입금한 사유로 인해 행정에 차질이 있습니다. 아래 해당시기에 입금하신 분의 연락을 바랍니다.

입금일시	금액	통장예외내용	입금경로
2016년 6월 28일 04시 38분	100,000원	비XX부조금	인터넷뱅킹
2016년 8월 10일 13시 50분	100,000원	이XX부조금	인터넷뱅킹
2016년 8월 24일 22시 41분	100,000원	김한중부금	CD
2016년 9월 2일 11시 02분	30,000원	신XX조외금	모바일뱅킹

◇ 회비내신분

연회비(7월~9월)

김임수 소속자 천영일

◇ 회비안내

(종신회비로 납부시 연회비를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연회비 : 30,000원 종신회비 : 300,000원

우리은행 계좌번호

회 비 납 부 1006-901-277104

경조사납부 1005-101-255925

협 찬 회 비 1005-001-954097

